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전 세계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야말로 주님의 몸입니다.

즐겁고 흐뭇하고 행복한 시간 누리십시오. 오늘은 없는 것이 많습니다. 1부예배·점심·오후 집회. 하지만 사랑과 감사는 있어야겠지요?

아이들과 함께 수요집회에 오셔도 좋습니다. 아동부에서 매주 수요 저녁집회 시간에 탁아방을 운영합니다.

18일(목)에 개강합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김기석 목사와 전성은 선생이, 저녁 7시 30분에는 김재홍 목사가 이끕니다.

푸른어린이도서관의 가을학기(9월 9일-11월 28일) 문화강좌를 알려드립니다.

- 일어회화 초급(화/10시, 문금석 권사)
- 한문서예 초급(목/13:30, 이봉옥 권사)
- 영어회화 초급(화/10:30, 금/14:00, 장혜숙 권사)
- Fashion Painting(금/16:00, 광권희 집사)
- 재미 솔솔 이야기나라(수/17:00, 7-9세 어린이, 김희우 선생)

삶의 무게를 더는 일은 군더더기를 털어내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을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삶의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이 가을 논밭에 오곡백과를 허락하시어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열매 하나하나에 담긴 주님의 은총과 농부의 수고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주 대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명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기쁜 명절기간에도 원치 아니하는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들의 작은 관심과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길고 고된 길이지만 가야 할 고향이 있기에 기꺼이 귀성길에 오르듯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하늘 고향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길 떠나는 순례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현금:

박옥식 윤정덕 구성실 김정길 최숙화 김정섭 김용길 최영혜 김필순
 백요현 신윤정 서원금 안정숙 윤미경 윤수진 조병주 이광용 형인순
 이정규 이인섭 김순복 전영웅 김훈동 왕성환 강순배 정한구 권미숙
 이성운 김재흥 최희영 김주경 김준우 우순덕 전세종 오정숙

월정현금:

고속이 김영순 김성자 박경원 이은자 정두리 김종문 지명주 문금석
 김미순 하현철 최성애 이인웅 조순덕 권미정 김현영 정원석

감사현금:

박병구 한학수 김정섭 이인섭 오광자 황경순 김춘려 오정숙 전성오
 전세종 이유일 김미희 이희균 김현영 정원석 오래된 미래 무명3

생일감사: 김철수 무명1

녹색공헌금 : (누계 : 2,170,000원)

	장혜숙	장혜숙	정두리	조순덕
	노순옥	정경례	심	정경례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서원금
	문영혜	박경선	문영혜	곽혜자
	안정숙	박애순	박애순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이인섭	오정숙
	박호선	허정운	심	홍복선
	최숙화	권미정	심	최숙화
	이순정	김금순	심	오복순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이형숙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정현주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정옥영
	송양진	유경순	심	김명희
	이영란	박미영	심	윤정화
	박혜경	최영혜	심	박혜경

평 상

애들아, 저녁 먹자 등잔불 끄고 평상으로 나오너라
 허기진 나는 썩에병아리처럼 튀어나가고
 암탉 같은 엄마는 양푼 그득 수제빌 안고 온다
 니째 성, 모깃불에 풀 한 못 더 었고
 다담바른 누나가 손가락 쥐어줄 새도 없이
 아이 내구어—아이 내귀 식구들 둥글게 모여 수제빌 먹는다
 하아, 개복상냥구에 걸렸던 애호박이 맛있구나

식구들 모두 부른 배 내어놓고 평상에 누우면
 나도 불룩한 조롱박 배를 두드리며 누나 팔베개 고쳐 벤다
 소 없는 외양간 우에 박꽃이 환하구나
 으음, 박꽃!
 박꽃? 꽃밭!
 밭두렁!
 령? 령?
 나는 말꼬털 잊지 못해 밭을 구르고 누나는 깔깔대며 내 코를 비튼다
 누가 밤 하늘에 옥수수알을 뿌려왔으까
 까막새가 다 쥐 먹는 걸 보지 못하고 나는 잠이 든다

(반칠환)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람들이 세운 도성을 바라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도성,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도성을 바라며 사십시오. 그곳을 향해 날마다 새롭게 길 떠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제는 떠난 곳을 아쉽게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가야할 본향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준 부질없는 집착과 욕망들 훌훌 털어 버리고 가벼운 행장으로 그 길을 나서겠습니다. 고된 시간 찾아올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떠올리며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즐거운 추석 명절	성서에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가족과 함께 지내십시오	기도 / 이명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손성현 전도사 김기석 목사	김민주 선생 한완식 장로	인도자 곽권희 집사

9월	영접위원	조병무 하현철 조관행 이형숙 최성애 홍선희
	헌금위원	조병무 정영선(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마음의 크기로



옷 만드는 사람이 옷을 만들어 팔 때, 유일한 공(功, service)은 몸에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구두 만드는 사람이 구두를 만들어 팔 때에도 유일한 공은 발에 구두를 신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다른 것을 줄 때에는 두 가지 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받는 사람이 물질적 은혜를 입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주는 사람이 영적 은혜를 입는 것이지요.

남에게 베푸는 행위가 그 주인공에게 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 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받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다면 그의 영혼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돈 받고 팔지 않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기술과 재물을 값 없이 나눠주는 그런 사회를 상상해보세요.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물질적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 은혜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는 이미 축소판으로 존재합니다. 가족 공동체가 그것이지요. 한 마을 한 도시가 큰 가족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나라가 별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줄 때 그 양(量)은 물건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재어야 합니다. 가난한 여인이 다른 가난한 여인에게 보리죽 한 그릇을 나누어주었다면, 교회에서 주관한 자선 행사에 금화를 던져 넣은 부자보다 더 큰 칭송을 들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터인데도,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사뭇 다르더군요.

한 부자가 교회에 많은 헌금을 바쳤을 때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를 칭송합니다.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해서 궁핍을 느낄 리 없건만 사람들은 그의 너그러움을 찬양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적은 예물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요. 그 사람은 그 돈이 없으면 당장 배를 굶아야 할 지경이지만 아무도 그를 칭송하거나 그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을 칭송하느니 차라리 아무도 칭송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보

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가 바치는 돈의 액수보다 속마음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서 칭송할 사람을 칭송하는 게 더 낫겠지요. 사람들이 자기 재물 내어놓는 데 너그럽듯이 우리는 그들을 칭송하는 데 너그러운 사람이 됩시다.



콩 한 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밭 갈고 씨 뿌리고 익은 곡식 추수하는 농부의 수고를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농부에게는 쟁기, 낫, 쟁이, 삽 따위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있어야 합니다. 또, 삽자루와 멩에를 만드는 목공도 필요하지요. 마구를 만드는 무두장이도 있어야 하고, 마소를 위한 외양간과 곡물 쌓아둘 공간을 짓는 목수도 필요합니다.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제과업자도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농부의 모든 수고가 소용이 없습니다. 농부에게는 또, 목수가 톱질할 나무들을 가꾸는 숲의 관리인이 있어야 하고 빵 구울 때 쓸 장작을 장만하는 나무꾼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이, 콩 한 알 만드는 데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지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네 형편인데,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서로 착취하고 속이려 드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 없습니다. 남을 속이고 착취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단순하게 살기>> 중에서

바람은
그 강인함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의 승리의 깃발을
펼럭이게 합니다.

바람은
불꽃에 빛을 더하고,
희망의 이슬로
믿는 이들의 상상력에
물을 줍니다.(빙겐의 성녀 힐데가르트)